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영예

축제예술·전통 부문...7년 연속 부문별 성과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거듭난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제 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예술·전통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구는 지난 2016년 처음 '콘텐츠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부문별 수상 성과를 거

두며 '추억의 총장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축제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외국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축제 콘텐츠를 선별해 향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축제 시상이다.

지난해 약 60만 명이 방문해 성황

을 이룬 총장축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비롯해 ▲총장 월드컵 퍼레이드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며 광주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 총장축제가 '추억'이라는 무형의 소재를 '영화'를 테마로 특화시키며 국내외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면서 "성년을 맞이하는 올해 총장축제는 광주만의 'K-문화'가 살아 있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5·18민주광장 등 광주 일원에서 '제20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개최하고, 전 세계인들이 축제장에 머물며 함께 즐기는 축제로 치를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남구,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나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축물 건설 및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신축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건축물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청 내에 전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은 김병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이곳 센터는 관내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해 건물 신축에서부터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현장 기술 지원 및 점검 등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최근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 2명을 구청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팀을 이뤄 근무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관리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개축 등을 하는 건축물이며, 인테리어 공사 등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건축과 및 주택과 등 건축공사 소관 부서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공사장에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현장으로 보내 각종 업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빙기와 동절기를 비롯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시기에 따라 취약시설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사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을 통해 건축물을 제거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에 나서거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통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으로 건축물 안전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북구,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도시정체성 확립과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BD) 개발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과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우수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

현재 사용중인 북구 심볼마크(CI)만으로는 이미지 차별화에 한계가 있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북구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개발 전반을 위탁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8월까지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브랜드 개발에는 북구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책, 문화, 사회, 역사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며 국내외 성공 사례와 전문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선호도 조사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확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슬로건 만들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완성된 도시브랜드는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고, 선포식을 열어 주민들에게 북구의 새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민선8기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민선8기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민선8기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주제로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과 평가단의 역할 및 주민참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공약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조언했다.

민선8기 출범 후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17개

공약, 67개 사업을 제시했고, 사업부서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발전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해 3차례의 회의를 거쳐 49개 이행사업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윤규진 기자

광산구, 언어·청각 장애인 소통 창구 운영

"언어장애가 있어 행정기관에 문의 사항을 말 하려면 힘들어요. 언어·청각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 창구가 있으면 합니다."

최근 '광산구청장 직통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접수된 한 장애인의 호소에 광산구가 언어·청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민원창구 운영에 나섰다.

창구의 이름은 '이음번호0420'.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의 숫자를 따 010-3234-0420 번호로 광산구 장애인복지과 문자 전용 회선을 개설했다. 언어·청각 장애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로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광산구는 문자로 접수된 불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답변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통 창구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언어·청각 장애인 690명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아인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문자 소통 창구를 제안한 박정웅 씨는 "박병규 청장님께 문자로 보낸 제안이 실제로 반영돼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산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생활 속 차별의 장벽을 없애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계순(480103-2*****) 2022.11.6. 사망
최후주소 : 순천시 상인제1길 39-4 (인제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2022-단617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3.02.23.
청구인 : 최화연, 최난희, 최의원, 최화심, 최문경
공고기간 : 2023.02.23.~2023.04.23.
신고처 : 순천시 상인제1길 39-4 (인제동)
2023.02.28.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전남도민일보